남북, 육·해·공 모든 공간 일체 적대행위 전면중지 합의

송영무·노광철, '판문점선언 이행 군사분야합의서' 서명·교환
GP 11개 철수·JSA비무장화… 내년 4~10월 DMZ내 공동유해발굴

남과 북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도출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개최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담겼다.

한반도 일대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

남북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총 10㎞ 이내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포병 사격이나 대규모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까지 약 80km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해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 중지했다. 공중에서는 항공기의 기종과 지역에 따라 차별화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명시했다.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으로 DMZ내 상호 1km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올해 12월말까지 우선 철수하기로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비무장화를 위해 남과 북은 물론 유엔군사령부까지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달 1일부터 20일간 지뢰제거 작업 등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DMZ내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강원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연내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고, 내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7개월간 유해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 남북간 공동수로조사 및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공동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북 군사당국은 과거 협의했던 방안에 기초해 빠른 시일 내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및 단계적 군축 문제 등 다양한 사안들을 협의해 해결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남북간 첨예한 대결상태에 따른 군사적 긴장고조 상황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적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마련했다"며 "다른 분야에 비해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군사분야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상호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북도-정읍시-유비넷시스, 첨단과학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

2021년까지 산단 내 56억원 투자 공장 신설
입주 완료 시 25개 일자리 창출 기대

정읍시는 19일 정읍시청에서 유진섭 정읍시장, 전북도 차주하 투자유치과장, ㈜유비넷시스 이진주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과학산업단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유비넷시스는 투자협약을 통해 2021년까지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14,128.6㎡(4,274평) 부지에 56억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며, 입주 완료 시 2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전망이다.

2003년 설립된 ㈜유비넷시스는 ESS,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환기관리 시스템 등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이다. 현재 경기도 화성에서 본사 및 공장을 운영 중이며,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출력전압 가변장치와 단위 배터리셀 조립구조체 등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8년에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사업인 이노비즈 인증을 받아, 원격 감시 시스템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유진섭 정읍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첨단과학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해주신 ㈜유비넷시스에 감사드린다"며, "정읍 공장 신설로 ㈜유비넷시스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두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이와 함께 정읍시 경제도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이번 투자협약을 포함하여 80%의 MOU 체결률을 달성하였으며 전북도, LH,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와 함께 우량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2019년까지 분양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전국체전 앞두고 전북 체육스타들, 후배 격려

전북 체육을 빛낸 영광의 얼굴들이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단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전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오는 10월 익산 등 도내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20여일 앞두고 유인탁과 임미경, 김동문, 박성현, 서연희 등 전북 체육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린 스포츠 스타들이 후배 선수들을 응원·격려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LA)올림픽 레슬링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유인탁씨는 '간절함'을 강조하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그는 "모든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하지만 누구는 성적을 내고 누구는 성적을 내지 못한다"며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간절함이다"고 말했다.

'우생순'(우리생애 최고의 순간) 신화의 주인공인 임미경씨는 전국체전을 발판삼아 세계로 나아가는 선수로 성장하기를 기원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여자핸드볼 임미경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체육대회가 바로 전국체전이다"며 "우리 전북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셔틀콕 제왕'인 김동문씨는 애향심을 강조하며 선수들을 다독거렸다.

1996 애틀랜타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 2004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그는 "이번 전국체전은 전북지역에서 열리는 만큼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홍보하는 홍보대사 역할에도 신경써야 한다"며 "다른 대회보다 더 후배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2004아테네올림픽 2관왕, 2008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신궁' 박성현씨는 후배 선수들에게 컨디션 조절을 당부하고, 1986 서울아시아게임 체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서연희씨는 후배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냈다.

한편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단은 다음달 1일 전북도청 대공연장에서 결단식을 열고 필승을 다짐한다. /뉴시스

상인과 인사 나누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민생현장인 군산 소재 군산상설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JSA 비무장화… '권총' 도 휴대하지 않는다

남북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JSA 남북 경비병력들은 권총도 휴대하지 않고 자유롭게 남북을 왕래하며 근무할 예정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먼저 이번 합의에 따라 남과 북, 유엔군사령부 3자는 최우선 과제로 다음 달 1일부터 JSA 내 지뢰를 20일 안에 모두 제거할 계획이다.

이어 지뢰제거가 완료된 후부터 5일 이내에 초소와 인원, 비자동소총·자동소총과 권총 등 화력장비들을 전부 철수한다.

특히 경비근무의 경우, 남북은 각각 35명 이하의 비무장 인원으로만 근무를 하기로 하고, 권총도 휴대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경비근무 인원들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쓴 완장을 왼팔에 착용하고, 비무장상태에서 남북을 경계없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근무하게 된다. /뉴시스

내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9200원으로 결정

전년대비 10.2% 상승, 도·출연기관 근로자 460여명 혜택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채준호)는 19일, 도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적용 생활임금을 9,200원으로 결정했다.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8,350원/시급)을 토대로 한국형 생활임금 표준모델 연구자료에서 제시한 3인 가족 기준의 기준생활비에 5년간 소비자물가와 2019년도 타 시도에서 결정한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이는 2018년 최저임금(8,350원)대비 110.2% 수준이다.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액 결정은 여러 지자체의 사례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산정했으며,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도 및 도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내년에 최저임금보다 월 17만 7천 65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최저임금과 달리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이번 2019년 적용 생활임금 결정으로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460여명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2019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향후 민간 기업에도 생활임금이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김잔성기자